



'80년만에 고국 품으로'...사할린동포 270명 올해 첫 영주귀국

- 작년 선정자들 2월 단체·개별 입국..재외동포청, 9일 동해항에서 100명 환영행사
- 변철환 차장 “동포들 안정적 정착 지원하겠다”...올해 선정자는 하반기에 귀국 예정

-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(100세)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첫 영주귀국을 한다.
 -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.
 -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24시간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하고,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.
-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과 대한적십자사(회장 김철수)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한다.
 -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,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할 계획이다.
 - 특히,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(92세)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하고 환영할 계획이다.
 -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등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할 예정이다.
- 변철환 차장은 “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,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”이라며 “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- 박은영 본부장은 “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,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다.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년 간 지원해왔다”며 “올해에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전했다.
- 정부는 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,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
 -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, 법무부,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. 1992년부터 현재까지 5,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.
 - 한편, 작년 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,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.
 -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~3세 모국 방문 사업,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국장	이 기 성	032-585-3153
	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사무관	권 오 성	032-585-3288
	대한적십자사	책임자	팀장	정 재 은	02-3705-3790
	원폭피해자·사할린동포지원본부	담당자	과장	박 윤 주	02-3705-3795